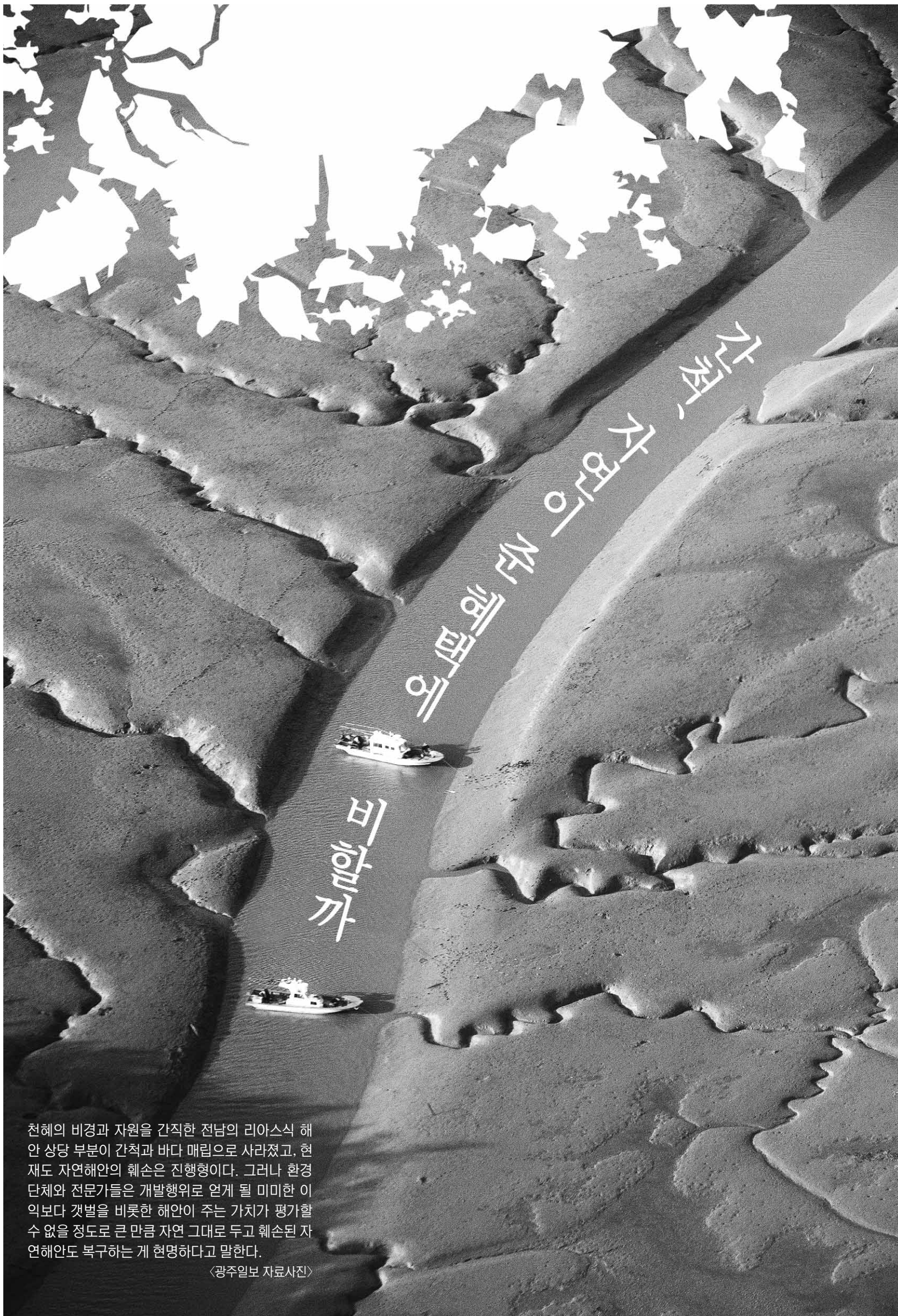




천혜의 비경과 자원을 간직한 전남의 리아스식 해안 상당 부분이 간척과 바다 매립으로 사라졌고, 현재도 자연해안의 훼손은 진행형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개발행위로 얻게 될 미미한 이익보다 갯벌을 비롯한 해안이 주는 가치가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만큼 자연 그대로 두고 훼손된 자연해안도 복구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사라지는 전남 리아스식 해안

〈8〉 이젠 자연해안 복원 논의할 때

천혜의 비경과 자원을 간직한 전남의 리아스식 해안 상당 부분이 간척과 바다 매립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졌다.

농지와 산업단지 건설이라는 명분으로 방조제를 세운 뒤 땅을 넓히고 신규 어항 및 리조트 건설을 위해 바다를 조금씩 매운 것이 이제는 자연 그대로의 해안선을 좀처럼 찾기 힘들 정도로 그 원형을 잃은 것이다.

환경보호단체와 활동가, 전문가들은 그러나 갯벌을 비롯한 자연해안이 인류에게 주는 혜택을 고려한다면 간척과 바다매립을 통한 이익은 미미하다며 개발행위를 중단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나아가 훼손된 자연해안을 복구하는 방안을 연구한 뒤 행동으로 옮겨야한다고 주장한다. 간척지 앞 방조제 수문을 열어 강이나 인공호수 안의 물이 바다로 끊임없이 흘러들게 하면 망가졌던 자연해안이 되살아나고 막혀있던 강이나 호수의 수질도 개선된다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남에서도 영산강 하구둑을 열어 해수와 담수가 만나도록 해야한다는 논의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바다 매립·항만 등 무분별 개발에

‘세계 5대’ 전남 갯벌 10% 사라져

영산강 하구둑 개방 협의체 구성

“수문 열어 물 흘러야 인간도 살아”

광주일보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해남, 나주, 영암, 목포, 영광 등 전남의 해안 곳곳을 살펴본 결과, 자연해안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곳은 찾기 힘들었다. 농지와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간척, 각종 시설 건립과 해안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바다 매립으로 인해 훼손된 것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지난 2014년 내놓은 자료를 살펴보면 자연해안의 훼손 정도는 더 또렷해진다. 총 6743.27km에 이르는 전남의 자연 해안선 가운데 육지부는 2682.25km(40%), 도서부 해안선 4061.02km(60%)이다.

육지부(영광~목포~광양)의 경우 2682.25km 가운데 1313.38km(48.9%)는 인공 해안선으로, 개발로 인해 자연해안선이 사라진 것이다.

구분구별하고 기다란 전남의 해안은 예로부터 양식과 채취를 가리지 않고 많은 수산물물을 안겨왔고 갯벌을 비롯한 해안 곳곳이 간직한 천혜의 비경은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바다 매립과 간척, 항만 및 어항 건설 등 연안개발 행위로 전남의 해안의 절반 가량은 본래의 모습을 이미 잃었고 현재도 변화는 진행형이다.

이 과정에서 세계 5대 갯벌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전남의 갯벌 면적이 10분의 1가량이 사라졌다. 갯벌을 비롯한 자연 그대로의 해안에 기대 양식이나 수산물 채취 따위로 생업을 꾸리던 어민들은 타격을 입었다.

남도의 젓줄 영산강도 영산강하구둑이 들어선

지난 1981년 이후 바다로 향하지 못하고 썩어가는 호수 신세로 전락했다. 나주시 동강면에서 만난 영산강 어부 이대형(76)씨는 “60년째 마을 앞 영산강에서 고기를 낚고 있지만 하구둑 건설과 4대강 사업으로 들어선 수중 보 때문에 고기가 씨가 말라버렸다. 인간도 살고 자연도 살려면 강과 바다를 가로막는 하구둑과 수중보부터 철거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갯벌의 가치를 감안하더라도 개발행위 중단, 훼손된 자연해안 복원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진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3년 발표한 자료(해양생태계 관련조사)에 따르면 해안을 구성하는 대표적 자원인 갯벌의 단위면적당 가치는 농경지의 100배, 숲의 10배로 조사됐다.

연간 갯벌(전체면적 2487.2㎢)이 주는 경제적 가치는 15조7000억원(1㎢당 63억원)으로, 면적이 넓고 질적으로도 우수한 전남의 갯벌 가치는 6조5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산물 생산기능, 수질 정화기능, 여가 제공기능, 서식처 제공기능, 재해방지 기능을 고려한 것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갯벌의 잠재적 가치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아쉽게도, 전남 갯벌 면적은 지난 1987년 1179.10㎢이던 것이 지난 2013년에는 1044.40㎢로 무려 134.7㎢가 줄었다. 축구장 1만9000개 면적의 갯벌이 증발한 것이다.

갯벌을 연구하는 학자 전승수 전남대 교수(지구환경과학부)에 따르면 갯벌을 비롯한 연안의 가치는 사실상 무한대이다. 국토 확장과 농지면적 확대, 조선 등 산업용지 확보 등 연안 개발의 명분과 손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갯벌로 대표되는 자연 해안의 가치는 커지면 커졌지 결코 줄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농지나 산업용지 확보를 명분으로 진행된 영산강 하구둑 건설, 바다 매립으로 우리가 득을 본 게 뭐냐. 전남이 잃어버린 돈은 얼마며 잃어버린 미래를 상상해보라”면서 “갯벌보다는 보전과 제한적 이용, 파괴된 연안의 복구를 논의해야할 시점이다”고 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10월 광주·전남 환경단체 등이 영산강 하구 생태 복원과 하구둑 개방을 추진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영산강 기수 수생태 복원협의회’라는 협의체에는 목포 환경운동 연합, 영산강 살리기 운동본부, 남도 에코센터 등 47개 단체가 참여했다. 기수(汽水)는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을 가리킨다. 영산강 기수 수생태 복원협의회가 농지 침수 가능성 등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하구둑 개방운동을 펼치기로 하면서 영산강이 다시 옛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 사가현(규슈) 어부들의 방조제 수문 개방 투쟁이 전남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지난달 23일 사가현에서 만난 히라카 다노부키요(64)씨는 “수문을 열면 회복된다. 바다와 갯벌이 살아나고 고향 마을이 되살아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정부를 상대로 한 십여년간의 법정 투쟁, 선상 시위를 멈출 수 없었다”면서 “어업인, 농업인 등 개발행위 피해자들이 조직된 힘을 갖춰 움직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끝〉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취재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중개
법인**

한국토지경매

☎ 대표 **1522·3396**

경매 병원

감정가 140억, 최저가 78억
목포시 석현동 / 4층 / 대지 3659평, 건물 2522평

경매 골프장

감정가 39억8천만, 최저가 27억8천만
광양시 봉강면 / 9홀 / 대지 9673평, 건물 232평

매매

수익형상가건물

매매가 15억
첨단지구 / 총 3층
대지 198평 건물 450평
엘리베이터
중심상업지역
수익률 8~9%

경매 교육 연구 시설 **감정가 16억 2천만, 최저가 11억 3천만**
순천시 낙안면 / 대지 3987평 건물 336평 / 1종일반주거지역 / 아곡마을 내 위치 / 수목 식재

가스충전소 **감정가 12억 7천만, 최저가 7억 1천만**
화순 화순읍 / 대지 977평 건물 63평 / 자연녹지지역 / 35m도로접 / 자동차차기 / 3기 6구

수익형 상가 건물 **감정가 10억, 최저가 10억**
동구 금남로 / 총 4층 / 대지 118평 건물 305평 / 중심상업지역 / 금남로4가역 부근

숙박시설 **감정가 9억 4천만, 최저가 6억 6천만**
북구 중흥동 / 총 8층 / 대지 91평 건물 340평 / 일반상업지역 / 코너 / 광주역 앞 위치

상가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영업중

연립주택 부지 **매매가 12억**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 답 1098평 /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 주변 명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전원주택 **매매가 10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숙박시설 부지 **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7구 / 공실없음

연립주택 및 빌라 부지 **매매가 4억 3천만**
영암군 영암읍 춘양리 / 전 1513평 / 1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 / 월출산 조망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 - 6772 - 1114 김 주 성**